

중국의 섬유 수출 - 불황 속에서 계속 부드럽게 돌아가 <1/3>

◎ 세계적 불황이 터지면서 섬유 정세는 급전직하하여

중국의 섬유 공업은 중국 국민 경제의 재래형 기간산업이면서, 동시에 국제 경쟁에서는 우위성이 분명한 산업이기도 하고 국제 시장의 점유율은 세계에서 제일 크다. 그런데 금융 위기가 갑자기 터지면서 현재는 과거에 없었던 곤경에 빠져 있다.

“제 104회 중국 광저우 수출입 상품 거래회(中國 廣州 輸出入 商品 去來會 : 廣交會)는 금융 위기를 배경으로 시작되었다. 섬유 어패럴 수출액은, 지난 번 개최하였을 때와 비교하면, 31.5% 급감하였다. 2009년 상반기의 봄철 거래회에서는 섬유 어패럴 거래액은 불과 32억 3,000만 달러였다. 난징 방직품 수출입 고분 유한 공사 수출부(南京 紡織品 輸出入 股分 有限 公司 輸出部)에 의하면 2008년 하반기부터 정세는 급전직하(急轉直下)하며 구미로부터의 주문은 40 ~ 50%가 급격하게 줄었다. 구주의 오래 전부터의 단골 고객조차도 연락이 끊겼다.

장쑤 화가 실크 유한 공사 무역부(江蘇 花佳 silk 絲綢 有限 公司 貿易部)에 의하면, 주된 수출품은 미드·하이엔드(mid-high end : 中高價格帶) 제품이다. 금융 위기로 심한 타격(damage)을 받았다. 외국으로부터 구입해 오는 업자가 더욱 낮은 코스트의 원재료만을 주문한 결과, 생지로서의 본질을 가급적 삭감한다던가, 또는 전혀 사용하지 않는 정세로 되었다.

2009년 9월까지 섬유 어패럴 수출은 오랫동안 계속해서 부드럽게 돌아가

고 있다. 중국 방직 공업 협회 산업부의 통계에 의하면 2009년 1 ~ 9월에 섬유 어패럴의 수출액은 2008년 동기와 비교하여 11.1% 줄어든 1,216억 8,000만 달러였다. 2009년 1 ~ 8월에 섬유 어패럴 수출 총액은 11.7% 줄어든 1.075억 3,400만 달러로, 하락폭은 1 ~ 7월과 비교하여 0.6 포인트 커졌다. 6월, 7월, 8월은 2008년 동기와 비교하여 각기 9.8%, 12.1%, 15.3% 줄었으며, 전달과 비교하면 13.1% 증가, 17% 증가, 3.9% 감소로 되어, 조금씩 떨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주된 수출 대상에서는 1 ~ 8월에 대미 섬유 어패럴 수출액은 2008년 동기와 비교하여 0.07% 줄었고, 1 ~ 7월의 1.2% 증가와 비교하여 더욱 1.3포인트 떨어져, 연초(年初)로부터의 반발도 끝을 맺었다. EU에의 수출액은 2008년 동기와 비교하여 8.7% 줄었고, 1 ~ 7월과 비교하면 0.7 포인트 떨어져, 마이너스 성장이 계속되었다. 대일 수출액(對日 輸出額)은 0.9% 늘어나기는 하였으나 제 1사분기로부터 계속 부진하여 하락폭은 6.2 포인트로 커졌다.

또한 섬유 업계의 모순과 문제는 금융 위기로 뚜렷이 나타났다. 광교회에 참가한 기업의 대부분은 연해(沿海) 기업이며, 중서부 기업은 적었다. 또한 주된 수출 대상은 여전히 구미와 일본으로 되어 있으며, 다원화된 수출 구도는 볼 수 없었다. 그것도 중국의 시장으로 수출하는 상품에는 자주 브랜드(自主 brand)는 드물고, 디자인력이 약하고 가공 생산에 머물고 있으며, 제품부가 가치도 낮기 때문에 이익 여지(利益 餘地)는 극히 적다. 더욱이 생산 능력의 과잉이나 가격 경쟁 등도 일반적인 현상으로 되어 있다.♣